

불쑥 큰 '장외시장'... MZ세대 몰리자 증권사도 유치 분주

K-OTC시장 시총 전년비 90% ↑
올 거래금액 70억5000만원 넘어
신규상장 13개사 수익률 6000%
증권업계 팀 꾸리고 리포트 내놔



K-OTC 홈페이지 캡처. 화면에는 K-OTC 시장 개요, 거래량 순위, 상장 종목 순위, 주요 지수 및 지표, K-OTC 시장 소개 등이 표시되어 있다.

K-OTC 홈페이지 캡처.

장외 시장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MZ세대 투자자들이 공모주에 재미를 보지 못하면서 장외 시장에서 수익 극대화를 꾀하고 있어서다.

특히 과거 장외시장은 투명성이 부족해 투자를 꺼리는 투자자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장외시장에 대한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주식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이 활발하다. 이에 따라 젊은 투자자들이 적극 투자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장외 주식을 거래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인 K-OTC는 가파른 성장세

를 보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K-OTC 시장 시가총액은 30조6297억원으로 전년 대비 90% 가까이 증가했다.

거래 규모도 급증했다. 2016년에 일 평균 거래금액은 6억5000만원에 그쳤지만 2017년 10억9000만원, 2018년 27억7000만원, 2019년 40억3000만원,

2020년 51억5000만원에 이어 올해는 70억5849만원으로 뛰어 올랐다.

특히 올해 K-OTC 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들이 대박을 치면서 투자자들이 더욱 쏠렸다.

K-OTC에 상장한 13개 기업의 평균 수익률은 6000%에 육박했다. 지난 9월 입성한 두울물산의 주가는 8만%까지

치솟았다. 100억원대였던 시가총액은 8조원까지 급증했다.

이와함께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는 두나무도 2020년 7월 회원수 10만명을 달성한 이후 이달 현재 회원수가 80만명에 달한다.

'증권플러스 비상장' 앱 누적 다운로드수도 올 8월을 기점으로 100만건을 돌파했다. 모바일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장외주식을 실시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다.

KB증권은 지난달 신성장기업솔루션팀을 신설했다. 해당 팀은 유망 비상장기업 분석을 위해 이뤄졌으며 핀테크, 바이오, 그린에너지 등 성장산업의 우량 비상장 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지난 22일 하나금융투자도 미국 장외 주식을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홈

트레이딩시스템(HTS) 서비스를 출시했다.

올해 신한금융투자는 자사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MTS)에 계좌연동을 적용했다. 또 비상장벤처팀을 신설해 비상장 기업에 대한 리포트를 내놓기 시작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 삼성증권은 비상장 기업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내놓는 증권사들이다. 올해 두 증권사는 각각 20여건, 70여개에 대한 리포트를 발간했다.

특히 DB금융투자는 지난 2019년부터 매주 비상장기업 분석 보고서를 발간해 올해까지 80여 건을 공개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비상장 주식은 상대적으로 상장주식에 비해 투명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만큼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고,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LH, 9개 지자체와 고령자복지주택 추진

경주시·남해군·천안시 등 9곳 참여
고령자 특성 고려 각종 서비스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시 중구 힐튼호텔에서 전국 9개 지자체와 함께 '고령자복지주택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세대 내 단차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 연령 특성에 맞는 주택설계와 건강관리 및 문화활동 등 특화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와 사업추진을 위한 기관별 업무와 사업비 부담 등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는 LH와 ▲경주시 ▲남해군 ▲대전광역시 동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시 ▲의정부시 ▲인제군 ▲제주특별자치도 ▲천안시 등 9곳의 지자체가 참여했다.

LH는 협약에 따라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의 기획과 주택 설계 및 시공, 준공 후 주택의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김현준 LH사장(왼쪽 일곱번째)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된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사업 부지를 제공하고 단지 내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등을 상호 협력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 9개 지자체에 추가로 고령자복지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며 특히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주택 설계와 각종 복지서비스가 함께 제공돼 지역 어르신들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더욱 편리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LH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우리 사회에서 고령자복지주택이 새로운 주거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록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다양한 주제와 협업 및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오는 2025년까지 1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저렴한 비용으로 맞춤형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 고령자복지주택은 주거와 건강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델"이라며 "이번 9곳에서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 내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대전 도안 센트럴 아이파크' 이달 공급

HDC현산, 전용 84㎡ 377실 규모
도안신도시 최대 브랜드 타운 형성

HDC현대산업개발은 '대전 도안 센트럴 아이파크'를 이달에 선보인다.

25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대전 도안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6층, 5개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377실 규모다. 각 블록에는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특히, 해당 단지는 올해 11월 입주를 시작하는 '대전 아이파크 시티 1, 2단지' (2560가구)와 함께 3000여 가구의 아이파크 브랜드 타운을 형성할 전망이다. 이번 분양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은 도안신도시 최대 규모의 브랜드 타운(단일 브랜드 기준)을 형성하게 된다.

교통시설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역(예정) 역세권 입지를 자랑하며 동서대로와 도안대로가 연결해 있다.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도 이용할 수 있다.

홍도초와 대전도안고를 걸어서 통학할 수 있으며, 대전복용유치원(예정),



'대전 도안 센트럴 아이파크' 조감도. /HDC현대산업개발

대전복용초(예정), 서남4중(예정)도 인접해 있다. 원신흥도서관과 목원대 약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다.

중심상업지구가 가깝고, 홈플러스, 롯데마트, 메가박스, 대전시립박물관 등의 다양한 쇼핑, 문화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도안문화공원과 진잠천수변공원이 단지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대전시 내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안신도시에서 공급되는 데다,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공급돼 2030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연우 기자

'판교 알파돔시티 복합시설' 준공

미래에셋자산운용 기념행사 개최
6-1, 6-2 블록 신분당선 등과 연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5일 판교 알파돔시티 6-2 블록 건물 내 아트리움에서 6-1, 6-2 블록 복합시설 준공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미래에셋에 따르면 판교 알파돔시티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일원으로 사업면적 4만2000평, 건축연면적 36만9000평 규모다. 경부고속도로 판교IC 앞에 위치한 교통 요지로 현재 오

피스, 주거단지뿐만 아니라 호텔, 백화점 등도 위치해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17년 12월 주식회사 알파돔시티와 알파돔 6-1, 6-2 블록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알파돔 6-1, 6-2블록은 신분당선 및 경강선 판교역이 바로 연결된다. 대왕판교로와 서현로, 판교 IC와 가까워 접근성이 좋다. 화랑공원과 판교테크노파크 공원, 붓들공원 등도 인접해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18년 5월 미국 NBBJ와 한국 히림건축사사무소를

설계사로 선정했고, 같은 해 11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공사는 2019년 2월에 착공해 지난달 27일 건물준공승인을 완료했다. 사업비는 총 1조6400억원이 소요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준공한 6-1, 6-2블록 복합시설은 각각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다. 6-1블록 복합시설은 연면적 4만9226평으로 카카오키오,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키텔사가 입주해 카카오키오로 사용할 예정이다. 6-2블록 복합시설은 연면적 5만9644평으로 네이버 계열사, 국내 정보기술(IT) 기업 및 대형 법무법인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KB증권, ESG 인증 유동화채권 내달 발행

KB증권은 신용보증기금, KB국민은행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민간투자사업 투자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ESG 민간투자사업의 투자 촉진과 금융 지원을 위해 협력하고, 사업 발굴 노하우와 네트워크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첫 지원으로 오는 12월 발행 예정인 ESG 유동화채권 2800억원(예정)을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사업 최초의 보증부 ESG 인

증 채권으로, 한국신용평가 ESG 'SB1' 등급(채권 사회부문 1등급)을 받았다. ESG 인증 채권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개선 등 사회적 책임투자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이다. 신용평가사나 회계법인 등 ESG 평가기관이 인증한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ESG 투자분야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는 첫 발걸음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적극적인 ESG 투자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